

외벌이는 힘들어...80년대생 아내 결혼4년차에 다시 일터로

1980년생 아내가 출산 이후인 결혼 4년 차부터 다시 출근길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집을 갖게 되는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많아지는 시점도 이쯤이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통계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혼인신고한 이혼 후 5년간 국내에 거주한 초혼 부부 21만 2287쌍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2019년까지 매년 10~11월에 진행했고 출산·경제 활동·주택 소유 등을 중심으로 기록을 남겼다.

먼저 아내 출생 연도별로 경제활동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1980~1984년생, 7만6962쌍)의 경우 혼인 첫해에 59.7%가 일을 했다. 이후 2년 차와 3년 차에 이 수치가

통계청, '신혼부부 5년간 변화' 보고서 발표

80년대생 아내 결혼 첫해 경제활동 비중 60%

3년차에 50%대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

대체로 2년차에 출산하면서 휴직 느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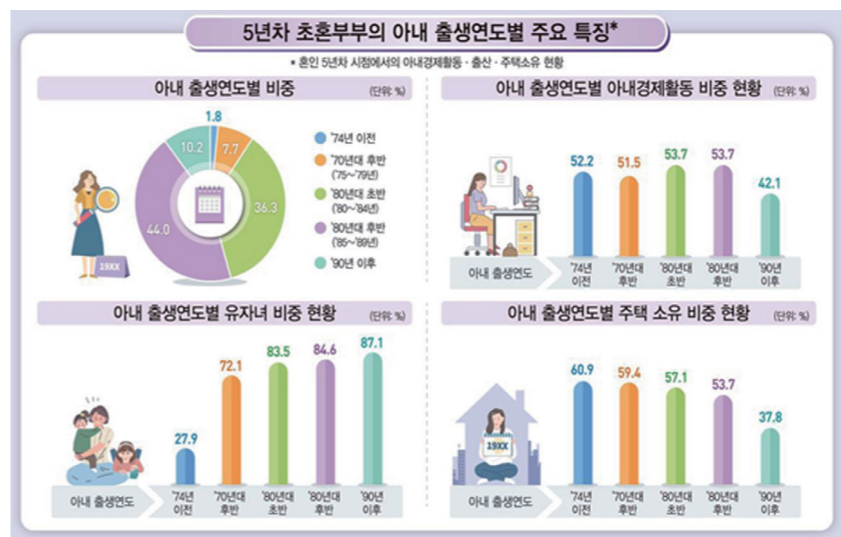
각각 58.3%, 51.7%까지 떨어졌고, 4년 차와 5년 차에는 각각 52.6%, 53.7%로 소폭 상승했다.

1980년대 후반(1985~1989년생, 9만3383쌍)은 1년 차에 61.7%로 가장 높았다. 이후 2년간 54.7%, 51.8%까지 내려간 수치는 결혼 4년 차부터 반등해 52.5%, 53.7%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출산 시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아내가 1980년대 초반생인 부부의 출산 비중은 첫해에 23.9%에서 2년 차에 58.4%로 급증하고 이후 5년 차에 83.5%까지 늘어난다. 평균적으로 1.16명의 자녀를 뒀고 무자녀 비중은 16.5%다.

1980년대 후반생 역시 1년 차에 19.1%에서 2년 차에 절반을 넘기며 52.9%까지 치솟았다. 5년 차는 84.6%이며 15.4%는 자녀를 가지지 않았다.



평균 자녀 수는 1.19명이다.

아내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시점부터 신혼부부가 주택을 소유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생과 후반생 아내를 둔 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각각 4년 차와 5년 차에 52.8%, 53.7%를 기록하면서 50%를 넘겼다. 결혼 첫해에는 이 수치가 각각 38.4%, 31.5%였다.

또 다른 1980년대생 아내의 특징은 혼인 5년 동안 경제활동 비중이 비(非)활동보다 항상 높았다는 점이다.

1970년대생 아내는 비경제활동 비중이 컸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1980년대생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970년대 후반(1975~1979년생, 1만6377쌍)은 2015년부터 연도순으로 53.6%, 48.9%, 48.7%, 50.5%, 51.5%이며, 1974년 이전(3824쌍)에 출생한 아내는 48.9%, 48.2%, 48.6%, 51.6%, 52.2%로 집계됐다.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아내(2만 1741쌍)는 어린 나이의 영향으로 결혼 5년 차(42.1%)에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했다. 만 25세인 결혼 첫해는 경제활동 비중이 36.3%이며 2년 차에 33.7%로 최저치를 찍은 이후 35.7%, 39.4%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선욱기자



현대백화점, '레인보우 망고' 새벽 배송으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레인보우 망고를 소개하고 있다. 레인보우 망고는 주한태국대사관 상무관실과 손잡고 올해 처음 들여온 태국의 '마하차녹' 품종으로, 새콤달콤한 과육과 익을수록 알록달록한 색을 띄는게 특징이며, 다음달 31일까지 태국 '레인보우 망고'를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하룻밤 묵어야 했는데...” 여수~거문도, 1일 생활권 가능해진다

여수해수청-선사, '여객항로 안정화 사업' 계약 체결

여주시·여수해수청, 여객선사 운항결손액 100%지원



여주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오전 8시 출발해 여수항에 도착하는 파라다이스호. (사진=여수해수청 제공)

여주시 삼산면 섬마을인 거문도 주민들의 여수 나들이가 하루 만에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그동안 여수에서 출발해 거문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하루 두 번 왕복 운항했다. 하지만 여객선은 여수 도착 후 약 1시간 체류 후 거문도로 다시 출항하는 운항 일정이라서 거문도 주민들이 여수에 업무를 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23일 여수~거문도 항로의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2021년 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거문도 주민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다.

여수해수청은 '2021년 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위해 마땅한 선사를 찾아 공고했으며, 운항 선사인 엘에스 임팩트를 선정했다.

이 회사는 출발지를 여수에서 거문도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운항 신청했고, 여수해수청은 이 선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일생활권 항로 운항계획은 오전 8시 거문도에서 출발해 동(서)도, 초도, 손죽도, 나로도를 거쳐 10시 20분 여수에 도착한 후, 오후 4시(겨울철 오후 3시 40분, 여름철 오후 4시 30분) 여수에서 출발해 거문도에 오후 6시 20분(겨울철 오후 6시, 여름철 오후 6시 50분)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짜였다.

이는 여수 체류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5시간 40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거문도와 초도, 손죽도, 나로도의 섬마을 주민들이 하루 만에 육지 나들이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이 항로는 15일부터 시범 운항을 해왔으며,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23일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

여수시와 여수해수청은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국가 50%와 지방 50% 등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거문도 한 주민은 "지난 수십 년간 거문도 사는 사람이 여수에 일을 보기 위해서 하룻밤을 묵는 게 당연했는데, 거문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다니게 되면서 여수의 병원, 관공서 업무를 하루 만에 보고 되돌아올 수 있어 기쁘다"면서 "여객선이 고장 나지 않고 제대로 시간 맞춰 운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전남 여행하면 체험비용 지원' 전남도 관광업 활성화

올해 48개 업체·177개 상품 운영 지원

여행객에도 1인당 5000~3만원 지급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행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상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4개 업체, 66개 상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48개 업체, 177개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차량당 지원하는 최소인원 기준을 20명에서 4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전남여행도 지원한다.

다만 방역단계가 상향되면 여행

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여행버스 1대당 정원의 6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체온측정, 방역물품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주요 여행상품은 '낚시체험 힐링', 반려동물 인구조형에 따라 마련한 '펫투어', 남도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체험하는 '쉐프와 함께하는 전남 맛 쿠킹 클래스' 등으로 이색

적이다.

전남도는 1박 이상 숙박차량당 10만~30만원을 여행사에 지원하고, 관광객들이 체험여행에 참여해 1박 이상 숙박하고 2개 지역 이상 방문하면 1인당 5000~3만원의 체험비를 지원한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행업계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 대상 업체와 여행상품을 선정한 만큼 여행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청자골 강진 '수국 + 쌀귀리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수국과 쌀귀리 패키지 기획상품 온라인 직거래 판매 개시

강진군은 지난 22일부터 화훼단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수국'과 세계10대 푸드이며 강진군 대표 특산물인 '쌀귀리'를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한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집콕 생활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많아져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수국과 쌀귀리 선물세트를 통해 화려한 수국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쌀귀리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선물 세트 판매를 기획했다.

수국은 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 색상이 다양하고, 크기가 매우 크고 화

려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강진산 수국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꽃색이 선명하고 화려해 최고의 품질로 사랑받고 있다.

강진군의 대표 특산물인 쌀귀리는 단백질, 칼슘,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와 일종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2002년 미국의 뉴욕타임즈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되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고, 심혈관 질병 예방에 탁월하며 탈모 예방,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산 '수국+쌀귀리' 선물세트는 2종(수국 4송이+강진쌀귀리 1kg, 26,000원 / 수국 4송이+강진쌀귀리 분말 500g, 28,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입은 강진 그린화훼농조합법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yskim0757)를 통해 주문 가능하다.

"커피값으로 제주도"...국내선 여객 늘어도 LCC는 '울상'

특가 항공권 행사 연이어... "띄울수록 손해"

국내선 항공 여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었지만 항공사들은 여전히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들은 초저가 폭탄세일로 여객몰이에 나섰지만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4개 지역공항 국내선을 이용한 항공여객은 356만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객이 대폭 줄어들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2만명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용객 325만명과 비교해도 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여객 수요의 증대는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선 여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항공사들은 혼란만 겪고 있다. 국제선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선 운항 편수를 확대했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날씨가 풀리면서 특가 행사도 더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항공은 27일까지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판매하는 항공권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탑승하는 김포-제주, 광주-제주, 여수-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김포-광주, 김포-여수 노선이 대상이다.

특가 운임은 편도 총액 기준 김포-제주 2만2500원을 비롯해 여수-제주 2만2000원 등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국내선 항공권을 편도 운임총액 기준 최저 9900원부터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으로 3개월간의 기간을 부여하며 적극적인 수요 공략에 나섰다.

티웨이항공 역시 25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운영프로그램)에서 5~6월 국내선 항공권을 특가로 선보인다. 편도 총액 기준 김포-제주 1만 4900원, 김포-부산 1만5100원을 제시했다. 특히 티웨이페이로 결제 시 1만원 할인, 행사카드 결제 시 1만원 할인 등 이벤트도 운영한다.

진어는 지난달 왕복 기준으로 1만원대의 국내선 항공권을 판매했다. 에어부산도 지난달 말 국내선 왕복 항



공권을 최저가격인 8200원부터 판매했다. 심지어 에어로케이의 청주-제주 편도 특가 항공권은 평일 오후 기준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제주도를 커피값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LCC들이 생존을 위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나, 급증한 부채와 지속된 적자로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CC들은 국제선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0~80% 정도일 정도로 국제선에 의존하는 실적 구조를 보여왔기에 국내선 수요로는 부족하다.

LCC 관계자는 "1만원도 안되는 항공권은 띄울수록 손해지만 항공기를 그냥 세워두는 것보다 낫다"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일시적인 현금이라도 유입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이슬기자